



고양하천네트워크

[2020 고양시 하천 친구들]

조류편 1



고양하천네트워크



고양시 하천의 조류는 무엇이 있을까요??





개개비

- 참새목 휘파람새과의 철새
- 하천, 저수지, 하구의 갈대, 달뿌리풀 등 수변식물에서 서식한다.
- 번식둥지는 주로 물가의 갈대밭이며, 수면에서 약 0.8~2m 높이의 갈대 줄기 몇 가닥을 엮어서 그 위에 짓는다.
- 먹이는 주로 파리목, 딱정벌레목, 벌목, 매미목 등이며 양서류의 무미목, 연체동물의 유폐목 등도 먹는다.



꼬마물떼새

- 도요목 물떼새과의 조류
- 바닷가, 하천부지, 호숫가에서 여름철에는 암수 함께 살고 그 밖의 시기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.
- 둥지는 땅 위의 작은 돌 사이에 틀고 알자리에는 잔돌이나 마른 풀, 조개껍데기 등을 깐다.
- 천적이 알을 낳은 둥지 가까이 오면 어미새는 날개를 다친 듯한 이상행동을 해서 천적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간다.



노랑할미새

- 참새목 할미새과의 조류
- 낮은 산지 계류에 살면서 물가에서 곤충과 거미 따위를 잡아먹는다.
- 땅위에서 걸을 때는 다른 할미새류와 마찬가지로 꼬리를 까딱까딱 위아래로 흔드는 행동이 특징적이다.
- 둥지는 돌과 나무 뿌리 사이의 경사면에 있는 물 흐름이 센 곳 주변이나 강가에 위치해 있다.



논병아리-리

- 논병아리 목 논병아리과의 조류
- 내륙의 하천, 호수, 저수지, 연못, 물웅덩이에서 작은 무리를 볼 수 있다.
- 잘 날지는 못해서 놀라면 잠수하거나 수면 위를 스치듯 달릴 뿐 날아오르지는 않는다.
- 물속으로 잠수해서 작은 물고기, 수생곤충, 다슬기, 새우, 수초 등을 먹는다.



덤불해오리-기

- 황새목 왜가리과의 소형 조류
- 한국에서는 습지나 갈대밭, 논가 풀밭에서 번식하는 흔하지 않은 여름새
- 천적이 다가와 위험해지면 목을 하늘로 뻗어 부근의 갈대와 혼동되도록 의태행동을 한다.
- 수면 위에 둥지를 튼다.
- 갈대 위에서 먹이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잡아먹는다.
(물고기, 곤충류, 갑각류, 개구리 등)

모니터링 참여

고양자연생태연구회
더불어에코밴드
어린이식물연구회
에코코리아
하천생태동아리

2020년 고양하천네트워크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.



고양하천네트워크